

지역 소식통

정읍 벚꽃축제 전면 취소

정읍시가 해마다 3~4월이면 상춘객의 발길을 모으고 있는 정읍 벚꽃축제를 올해는 코로나 19 확산 여파로 전면 취소했다.

정읍 벚꽃은 4월 초순쯤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읍 지역에 확산될 우려에 따른 조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벚꽃축제가 열리는 정읍 천변로 일대는 매년 봄마다 2천여 그루의 벚꽃 나무에서 벚꽃이 만개하는 정읍시민의 대표적 명소들이 장소다.

하지만 시는 축제를 취소한 만큼 시민과 관광객 등 상춘객들의 벚꽃길 방문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유진섭 시장은 "세계적 위기로 치닫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의 엄중함과 정부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을 감안해 이번 봄만은 정읍 지역 방문을 자제해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정읍=김태환 기자

한빛원전 3·4호기

격납건물 설명회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25일 의정실에서 한빛원전 3·4호기 격납건물 관련 설명회가 열렸다.

한빛원전 3·4호기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는 25년째 가동 중인 한빛원전 3·4호기의 원자로 격납건물 외벽 철근이 노출됨에 따라 지역사회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한빛원전 3·4호기 안전성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 추후대책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하고자 열렸다.

고창군의회 한빛원전발전소 특별조사위원회 임정호 위원장은 "현재까지 260여개가 넘는 공극이 발견됐다. 공극이 해결되지 않은 채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 주민들이 느낄 열려를 전달하고 구조물 안전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취약계층에 67억원 푼다

정읍시, 생활 지원비·긴급복지 등 투입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67억원 규모의 긴급지원에 나선다. 이번에 투입되는 예산은 저소득층 생활 지원사업에 48억원, 코로나19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10억7,000만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5억7,800만원,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에 1억1,100만원, 생활지원비 사업으로 6,000만원 등이다.

시는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8,961가구를 대상으로 48억 원을 투입해 한시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울 수 있도록 차상위 1인 기준 40만원에서 6인 기준 148만원, 기초 수급자는 1인 기준 52만원에서 6인 기준 192만원까지 지급한다.

다. 또, 생계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절실한 세대에 대해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을 위해 10억7,000만원을 확보했다.

시는 저소득층의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을 위해 5억7,800만원 예산도 확보했다. 저소득층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총 57만4,500매의 마스크를 계약해 우선 확보물량 5만8,000매를 긴급 공급했고 추후 51만6,500매를 더 공급할 예정이다.

또, 1억1,100만원을 투입해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을 위해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장애인 거주 시설과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경로당, 등 다중 이용 복지 시설 885개소에 보건용 방역 마스크와 세정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읍=김태환 기자

정읍시, 지역 내 소상공인 지키다

공공요금·사회보험료 등

총 34억9000여만원 지원

정읍시가 코로나19 여파 속 경제 위기에 적극 대응하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키기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역 내 소상공인 대상 공공요금 지원에 도·시비 22억4,000여만원과 사회보험료 지원에 도·시비 12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연 매출 2억 원 이

하 지역 소상공인으로, 월 2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6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10명 미만, 월평균 보수 215만원 미만으로 4대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사업자의 분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두루누리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내달 1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팩스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지역경제과(☎063-539-5601~5605)

로 전화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24일 읍면동 지역경제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특별지원사업 관련 PC 영상회의'를 가졌다. 회의는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 관련 추진되는 소상공인 특별지원사업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정보를 공유해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코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대면 회의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동참하기 위해 PC 영상회의로 대체했다.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대상 공공요금·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 홍보·가맹점 모집 협조 안내가 이어졌다. /정읍=김태환 기자

정읍시, 지역 학생들에 방역 마스크 무상 지급

총 1만4134명... 1인 3매씩

정읍시가 지역 내 전체 학생들에게 공공 무상 마스크를 지급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마스크는 오는 4월 6일 개학 시기에 맞춰 지역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함해 각급 167개 학교의 학생 1만4,134명에 대해 1인 3매씩 총 4만2,405매를 배부할 계획이다.

4세 이하 유아들에게는 면 마스크를 지급하고 9세 이하 어린이들에게는



KF94 소형마스크를 10세 이상 학생들에게는 KF94 일반 대형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각각 아이들의 크기에 맞추어 지급한다.(사진)

마스크 보급은 각 학교로 직접 찾아가 마스크 사용 지침과 함께 배부하고, 배부된 마스크는 개학 전 학생들에게 즉시 전달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 밖에도 요양병원과 노인 의료복지시설, 장애인, 임산부, 119구호대원, 민원실 참주직원, 청원경찰 등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다중접촉자에게도 마스크를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과 인력시장에 근무하는 무등록 외국인 등 공공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외국인에게도 마스크를 배부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학생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전학생들에게 마스크를 배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태환 기자

부안마실축제 9월 18일로 연기

코로나 탓 제전위원회 의견수렴

부안마실축제 제전위원회(위원장 김진태)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5월 2일 개최 예정인 제8회 부안마실축제를 9월 18일로 연기해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을 감안해 축제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전위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뤄졌다.

부안마실축제는 지난해 전국에서 15만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으며 총 80여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제전위원들은 부안마실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매우

크며 부안군 대표 축제인 만큼 취소보다는 9월로 연기해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부안마실축제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부안매장공원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가을에 개최되는 것을 감안해 축제 프로그램과 콘텐트를 계절에 맞게 재구성할 계획이다.

김진태 제전위원장은 "군민과 관광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불가피하게 축제 연기를 결정했다"며 "축제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준비기간이 길어진 만큼 보다 더 내실 있는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관악현 부안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안읍 신운천 사면에 꽃잔디 1,500㎡를 식재한다.

신운천 생태하천 사면 꽃잔디로 수 놓는다

부안군 경관정비사업 차차

관악현 부안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안읍 신운천 사면에 꽃잔디 1,500㎡를 식재하여 지역주민 및 탐방객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고자 부안지방정원과 부안자연마당 사이의 신운천 생태하천 사면을 꽃잔디로 수 놓는다. 2020년 부안읍 신운천 경관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안지방정원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서 총공사비 60억원(국비 9, 도비 21, 군비30)으로 수질정화와 수생식물을 테마로 2018년 4월 공사착공하여 올해 11월말에 정원광장, 산책로, 조경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부안자연마당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총공사비 31억원(국비 9, 군비 22)으로 잔디

광장, 생태놀이터, 공중화장실, 산책로, 조경 등으로 지난해 12월 사업완료로 지역주민 및 탐방객의 쉼터와 두발라이프를 각광을 받고 있으며, 2020년 부안읍 신운천 경관정비사업으로 신운천 산책로 및 양쪽사면의 꽃잔디가 금년 4월에서 10월까지 꽃잔디가 활짝 피어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지역주민과 탐방객에 선물하고자 한다.

관악현 부안군수는 지역주민 편익증진과 탐방객 유치로 민선7기 군정방침인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호가 지역경제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주민 소득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